

#### 14. 作付體係를 달리해온 隣接耕地들의 雜草種子 埋立狀態 및 雜草發生力

( 서울대학교農科大學 ) 權容雄, 鄭奉真

表面에서 深度 16cm 까지 土壤속에 묻혀있는 雜草種子들과 그들의 發芽율을 作付體係가 다른 隣接圃場들에 對해 調查하였다. 作付體係가 水稻單作, 水稻와 호밀, 콩과 보리, 콩과 호밀, 밀-휴한-보리-휴한, 고구마-휴한-옥수수-휴한, 땅콩-휴한-참깨-휴한, 딸기와 부추등이었다.

深度 2cm, 面積 1㎡ 당 묻혀있는 雜草種數는 畝에서 平均的으로 30,000 ~ 40,000 個 程度이며 밭은 60,000 ~ 80,000 個 程度였다. 대체로 深度 8cm 까지 種子分布는 均一했으며, 8cm 以下에서는 減少하는 傾向이었다.

埋立 雜草種子の 發芽性은 모래가 混合된 土壤을 2個月 동안 埋藏한뒤 이를 低溫期間 동안 發芽시킨 것이 高溫期間 동안 發芽시킨 것보다 2倍程度 높았다. 当年에 發芽可能한 比率은 全體는 雜草種子の 35%, 밭 雜草種子の 7% 程度였다.

土壤속에 埋立된 雜草種子の 數와 分布는 作付體係에 의해서 影響을 받으나 그差異는 全體 雜草種子數에 比較해볼때 그렇게 重要時點 程度는 아니었다.